

당신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

굵은 나무 이야기

아버지는 형제를 얹어 놓고 비장하게 입을 뻗었다.

“각자 제 갈 길을 선택해라. 너희 둘 다 대학 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집안 말아먹고 온식구가 함께 길거리로 나 앉는 길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 등록금은 하늘이다. 과거에는 더 심했다. 자식의 불투명한 신분 상승을 위해 부모는 온몸을 불구덩이에 던져야 했다.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을 우골탑이라 부르기도 했다. 상아탑(象牙塔)이란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잠기는 고고한 경지를 일컫는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생트뵈브가 낭만파 시인 비니의 태도를 비평하며 쓴 데서 유래했다. 그 상아탑이 한국에 와서 우골탑(牛骨塔)으로 바뀐 건 1969년이다. ‘눈밭은 물론 아끼던 소를 팔아 자식 대학에 보냈더니, 대학은 등록금으로 성탑 같은 건물이나 지으며 돈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야유, 비판이었다. 40년도 지난 얘기지만 여전히 요즘 세대와 비슷한 감이 든다. 사립대 비해



나무를 골라 심은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 따라 굵거나 곧아져
쭉쭉 곧은 금강송은 잘려나갈 삶
굵은 나무는 조경수돼 보호 받아

화와 고액 등록금, 부정도 서슴지 않는 역사의 뿌리가 결코 짧지 않다.

고3과 고1인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몰랐다. 다만 대학이란 추상명사는 실체를 알 수 없지만 같은 또래들이 대단히 선망하는 로망임은 알고 있다. 시골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합법적 방편이 서울 유학이다. 시골 생활은 10년 후, 20년 후가 뻥히 보인다. 검고 굵은 주름 패인 아버지의 모습이 증거다. 피약별과 똥지개, 검벌레미와 보릿고개를 묵묵히 감수해야 한다.

서울로 유학하면 그것들과 결별할 수 있다. 말쑥한 차림으로 별천지의 별들과 함께 유명하며 고향 마을의 공기와 참상을 잊을

수 있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배짱방이 대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가 친구다. 그래서 대학은 추상이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목마른 갈망이다.

“결심이 섰느냐? 난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둘 다 대학 보내진 못한다. 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너희 중 하나는 대학 공부 시켜주마. 소를 팔든 땅을 팔든 등록금은 대주마. 단 대학 4년 등록금 대주는 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부터 알아서 살라라. 여기 남아서 나랑 농사를 짓겠다면 몇 돼기 되지 않지만 논밭을 물려주마.”

아버지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역점부사를 많이 사용했다. 누군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좋으려만, 어린 것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괴로운 짐목의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결국 형이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뻗었다.

“제가 여기 남아서 열심히 농사짓겠습니다. 동생이 머리로 더 좋고 똑똑하니 대학 가야합니다.”

불편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그렇게 정리되었다. 그날 밤 형제는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다독거렸다. 상황은 예측대로 진행되었다. 형은 시커먼 농사꾼으로 살고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여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뺨얀 얼굴의 셀러리맨이 되었다.

세월이 30년 훌쩍 흘렀다.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세상의 변화가 험하게 몰려왔다. 동생은 고만고만한 셀러리맨으로, 결혼해서 서

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여 아들 둘 낳고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다.

농부인 형은?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았다. 논밭이 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되고 공장이 되고 식당이 되었다. 수백억 대 부자가 되었다. 다행히 그들 형제는 다행이 없다.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그대로 살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유학 온 대학 동기 M군의 실화다. 양평 근처를 지날 때마다 M이 들려준 사연이 생각난다. 그는 지금 사업차 중국에서 산다. 가족은 한국에 있다. 1년에 두세 번 귀국해 술잔을 나눈다. ‘형님에게 한 뭉텨 씩둑 잘라서 도와달라고 해봐’라고 농담을 건네면 그는 씩 웃기만 한다. 다른 동기 녀석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

울에 산다는 영양가 없는 상표를 제외하면 시골 친구들보다 나은 게 없다. 불박이 장롱처럼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놈들의 삶의 질이 훨씬 양호하다.

‘굵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한다. 처음부터 곧은 나무, 굵은 나무 따로 심은 게 아니다. 환경에 따라 어떤 것은 곧게 자라고, 어떤 것은 굵어졌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후손들이 선산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베어가 집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팔아넘기기도 한다. 굵은 나무는 쓸모가 적다는 이유로 그냥 놓아둔다. 선산에 남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굵은 나무를 보면서 인간 사도 마찬가지로 원리임을 깨닫는다. 쭉쭉 곧은 금강송은 잘려나가길 대기하는 시한부 삶이다. 비틀어지고 굵은 나무는 팔자가 바

뀌어도 조경수가 되어 애지중지 보호를 받으며 천수를 누린다.

많이 배우고 출세한 후손은 어쩌다 선산을 찾아오지만, 조상의 묘를 가꾸고 돌보며 나름대로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남아 농사일을 하는 가난한 후손들이다.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은 좋은 일자리가 나면 얼마만 가서 이직을 하는 등 충성심이 떨어진다. 이 이유로 중소기업에서는 채용을 꺼린다. 오히려 우직한 중위권이나 지방대학 출신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당신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자루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당,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안경점, 산발매점,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불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